평화로운 가정
건강한 관계

감사의 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과 용기, 정의감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보내주신 수많은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책자를 바친다.

특히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기와 지원이 필요한 지 일깨워 주신 미세스 박, 미나, 그리고 미세스 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주: 미세스 박, 미나, 미세스 리는 신분보호를 위해 사용된 가명임)

학대의 삶을 딛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신 이들처럼, 독자 여러분들도 가정폭력이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가정폭력 없는 사회 건설에 동참하시길 바라면서 이 책을 출간한다.

이 책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한인가정폭력방지연합 회원들에 의해 1999-2001년에 처음 발간되었고, 2019-2020년 한인커뮤니티재단 지원속에 아시안여성의쉼터 한인회원들의 교정을 거쳐 재판되었다.

사전경고: 본 책자는 정서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자세한 사례들을 담고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지원해 주신 분들과 단체들:

- 쉼터(한인 가정폭력 프로그램)
- 아시안여성의쉼터 (Asian Women's Shelter)
- Nihonmachi Legal Outreach
-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 (Korean Community Center of the East Bay)
- 한인커뮤니티재단 (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 of San Francisco, KACF-SF)
- 한인가정폭력방지연합 (Korean American Coalition to End Domestic Abuse, KACEDA)
- 캘리포니아 주 보건서비스국 임산부및자녀보건부 (CA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Maternal & Child Health Division)

한인가정폭력방지연합 책자발행위원회: 조 Rosa, 조선정, 김주연, 김미미, 남 Grace, 염 Helen. (KACEDA Booklet Working Committee)

Copyright 2019-2020, 1999-2001 by Asian Women's Shelter

초판 한글 번역: 노재경, 조선정, 한주희

재판 교정: 아시안여성의쉼터 한인회원단체 (Koreans for Preventing and Ending Abuse through Community Engagement, K-PEACE)

초판 그림/디자인: 한주희
재판 그림: June Hong (K-PEACE 회원)
재판 디자인: Sewon Chung Barrera, Eun-Joo Chang (K-PEACE 회원)

차례

1. 가정폭력이란? 3

2. 가정폭력과 아이들 19

3. 법적보호 조치들 21

4. 가정폭력과 이민 신분 33

5. 가정폭력을 겪는 지인을 도우려면? 35

6. 지금 학대를 당한다고 느낀다면? 39

7. 헤어진 가해자로부터 안전 하려면? 44

8. 나 자신 돌보기 46

9. 지원단체에 대한 정보 보기 47

1. 가정폭력이란?

1) 가정폭력의 다양한 형태들

- 가끔씩 따귀 때리기
- 밀치기
-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기
- 생활을 통제하기 (취업제한, 등교방해, 외출금지 등)
- 모욕감을 주거나 욕하기
- 강제추방 시키겠다고 위협하기
- 아이들을 빼앗아가겠다고 협박하기
- 명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위협하기
- 정서 언어 폭력, 성폭력, 혹은 경제적 통제행위들

가정폭력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 부부사이
- 애인사이
- 동성애 관계
- 인척관계
- 사돈관계
- 부모와 자녀관계
- 이혼했거나 헤어진 사람들사이

아이들은 직접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학대를 목격하는 것 자체로도 깊은 상처를 입는다.

노인 학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배우자, 연인 등)이 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자식과 손주들에 의한 학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정폭력은 부부나 연인사이에서, 혹은 다른 형태의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행사하여 두려움을 야기하는 폭력적인 행동양식이다. 가정 폭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종종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동양식을 지칭한다.

혹시 당신에게 다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육체적 폭력의 예들

- 따귀 때리기
- 무차별적인 폭행
- 주먹질
-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 발로 차기
- 물건 집어 던지기
- 목 조르기
- 난폭운전
- 잠 못 자게 하기
-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상처 입히기
- 당신, 당신의 아이들, 다른 가족원, 또는 당신과 친한 사람을 해치겠다고 위협하기

아기를 낳은 후 내가 직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지자, 남편은 "영어를 못하는 바보같은 여자가 심지어 돈도 못 버니 도무지 쓸모가 없어"라고 했다. 그는 내 처지를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여자를 잘못 골랐다고 생각했다. 언쟁이 시작됐고, 소소한 육체적 학대로 이어지더니, 급기야는 내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의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아이들도 두려움과 걱정으로 고통받았다.

- 미세스 리의 이야기

정서적 학대와 언어 폭력의 예들

- 당신을 고립시키고 친구나 가족과의 연락을 못하게 하기
- 당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계속 사사건건 비판하기
- 고함치고, 당신을 바보, 못난이, 뚱보, 나쁜 엄마, 혹은 미친 여자라고 부르기
- 당신의 명성에 먹칠을 하겠다고 으름장 놓기
- 가정파탄을 당신의 탓으로 돌리려고 거짓말하기
- 당신이 문제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
-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기

동성애 관계에서 당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밝히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도 이 예에 포함된다.

이런 부류의 폭력은 흔히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나는 "가정 폭력"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여자 친구가 나를 때렸을 때, 그것을 가정 폭력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운이 나쁜 날이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이라 여겼다. 내가 받은 폭행, 마음의 상처, 그리고 깨진 접시라던지 잠 못 이루던 밤들을 그녀가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겪어야 했던 수모 등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과 연결 지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엔 단순한 질투로 시작됐다. 내 직장 동료와 친구들을 질투했던 그녀는 내가 늦게 귀가하거나 친구들과 외출하면 화를 내곤 했다. 내가 그녀를 떠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간의 질투는 나쁠 것이 없다고 그녀가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 할 때 그녀는 내팔을 붙들고 못 나가게 했고, 내가 나가게 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면, 그녀는 내가 떠날까 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자기를 속인다고 비난했다. 이런 그녀를 나는 가엾게 생각했고,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가지 않았다.

- 미나의 이야기

내 전 남편은 내가 일 안하고 집에 있으면 나를 바보라고 놀리며 직장도 못 구하는 쓸모 없는 여자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막상 직장을 구하면 돈을 요구했다. 그는"내가 몇 해 동안 먹여 살렸잖아. 내가 먹여 살리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죽은 목숨이야" 라고 말 하곤 했다. 그래서 급여로 받은 수표 한 장을 그에게 주고, 또 다른 한 장은 내가 보관했다. 그 수표를 내가 보관할 수 없다면 집을 나가겠다는 나의 경고에, 그는 알았다고 했지만, 봉급날이 되면 내 돈을 모두 원했기 때문에 몸 전체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다시 나에게 폭력을 가했다.

- 미세스 박의 이야기

성적 학대

- 당신이 성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때에도 관계를 요구하는 것
- 당신이 맺고 싶지 않은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
- 성병을 전염시키는 행위

경제적 학대

- 가족에게 필요한 돈을 제공하려 하지 않음
- 당신으로부터 돈을 뺏어감
- 당신이 돈을 쓰지 못하게 함
- 도박에 돈을 다 씀
- 당신이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함

내 여자 친구는 그녀 몫의 방세를 낼 돈조차 없을 때가 많았지만 외출할 때는 꼭 나에게 용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비싼 옷 등을 사 달라고 할 때 안된다고 하면 내가 인색하다고 비난하며 화를 냈다.

- 미나의 이야기

2) 심각한 가정폭력: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울까?

가족 혹은 연인 관계는 서로의 안전과 신뢰속에 다져져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든 가정폭력은 그런 관계를 깨뜨리고 만다.

가정폭력은 사소한 일로 시작되어 점점 심각해지곤 한다. 흉기가 사용될 경우 중상 또는 사망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여성피해자 중 42%가 남편 또는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내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학대가 가정과 아이들,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침묵을 지키거나 도리어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정폭력에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데 방해가 되곤 한다.

언젠가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갔는데, 여자친구가 나 보고 늦게 왔다고 화를 냈다.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했지만, 그녀는 따귀부터 때렸다.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눈길을 돌리고 식사를 계속 했다. 나중에 한 분이 나에게 "늦게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면서 "여자친구가 요즘 힘들어 하고 있다니까 네가 더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주변에서 학대자에게 책임을 물었더라면 학대행위가 중단됐을 수도 있다. 주위사람들이 내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줬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와 함께 살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내 자신을 비난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미나의 이야기

3) 폭력의 문제성을 축소·부인하지 말자

- 가정폭력은 인간관계를 지배와 통제에 의해 유지하려는 행위이다. 어떤 방식으로 이런 관계가 유지될까?
- 가해자는 학대를 별것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거나 "자기가 언제 폭력을 가했냐"는 듯이 행동하기도 한다.
- 피해생존자나 가족, 친구, 이웃들 역시도 학대의 문제를 축소하거나 눈감아 버리진 않았을까?
- 이런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과 그로 인한 상처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게 한다. 또는 폭력발생사실 자체를 부인하게 하기도 한다.

폭력의 문제성을 축소 부인하는 언행은 어떤 것들일까?

가해자:
- 별것도 아니었는데.
- 왜 투덜거려?
- 내가 널 언제 쳤다고 그래.
- 침묵

피해생존자:
- 그래, 그건 별거 아니었어.
-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어, 그러니 내가 그만 얘기하자.
- 적어도 맞지는 않았으니까.
- 그 사람이 잘해 줄 때도 있잖아.
- 그이가 혹시 바뀔지도 모르잖아.
- 침묵

지인:
- 뭐 어디 크게 다치지도 않았구만.
- 그녀가 투덜거릴 게 뭐람?
- 맞지도 않았는데 뭘 그래.
- 부부가 다 그러고 살지, 안 그래?
- 남자란 다 그런 거야.
- 나랑 관계없는 일이니까, 난 상관하고 싶지 않아.
- 그건 그 집안 사정이야.
- 그 사람 앞으로 바뀌겠지.
- 침묵

4) 폭력을 변명해주지 말자

변명: 학대자 또는 학대자의 행동에 구실을 달아주는 것.

학대자 뿐 아니라 피해생존자, 가족, 친구, 이웃 등 우리 모두가 폭력을 변명해주고 있지는 않은가?

폭력을 변명하는 언행은 어떤 것들일까?

가해자:
- 그때 술에 취했었으니, 내가 기억이 날 리가 없지.
- 술이 웬수지,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
- 오늘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 내가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서 좀 그런 것 가지고 뭘 그래!
- 직장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데 너가 이해해야지!

피해생존자:
- 그가 술김에 그런 것뿐이야.
- 하루 종일 일이 꼬여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이해하자.
- 그도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
-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러는 거니, 내가 이해해야지.
-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 하잖아.

지인:
- 술김에 한 일이겠지.
-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겠지.
-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없어서 그래.
- 그래도 돈은 잘 벌어다 주잖아.
- 그래도 그는 착실한 기독교인이야.

음주: 폭력의 원인?

- 가해자는 음주 또는 마약을 핑계로 자제력을 잃었다고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변명하기도 한다.
- 음주 또는 마약사용이 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
- 술과 마약을 끊은 뒤에도 가정폭력을 지속하는 가해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음주나 마약사용이 폭력의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 피해생존자를 탓하지 말자

- 가해자들이 "폭력을 부추겼다"면서 피해자 탓을 하는 것을 적지않게 볼 수 있다.
- 친지나 이웃들도 종종 피해생존자를 비난한다. 당신이 "맞을 만한 짓을 했다," "엄마, 부인, 여자친구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에 맞았다," 혹은 당신이 "가해자의 비위를 잘 맞추려고 노력했어야 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 심지어 배우자나 애인에게 상처주는 일이 "정상적인" 일인 양, 그래서 여자들이 폭력을 그냥 참고 견뎌내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 피해생존자들도 혹시 그들이 폭력을 유발시킨 것은 아니었을까 종종 의심하곤 한다. 자신이 좀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학대를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학대당한 사실을 수치스럽게 느끼기도 한다.
- 하지만 어떤 형태의 가정폭력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가정폭력의 문제를 부정하거나 무시는 것은 "가정폭력, 일어나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

피해자를 탓하는 행동이나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해자:

- 그건 당신 때문이었어!
- 당신이 그렇게 바보처럼 굴지 않았으면 내가 때렸겠어!
- 당신이 엄마로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 당신이 나보다 잘난 것 같아?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피해생존자:

- 그건 다 내 탓이야.
-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굴지 않았으면 안 맞았을 텐데.
- 내가 불평만 안 했어도 그가 안 쳤을 거야.
- 내가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

지인:

- 그녀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가 그렇게 화가 났지?
- 그녀가 더 좋은 아내/엄마/여자 친구/며느리/기독교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
- 그녀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지 뭐.
- 다 그녀의 업보야.
- 그녀가 어떻게든 그(가해자)의 기분을 풀어줘야 해.
- 그냥 그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될 것을...
- 그녀가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
- 신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지.
- 그녀가 그를 용서해야 돼.

6) 가정폭력의 주기

- 가해자들은 상처를 입히고 나서, 미안하다고 빌면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하고, 또 그 후에 다정하게 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다정한 태도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 상처를 입인 후, 사과와 다짐을 하고, 또 다시 상처를 입히는 것을 보통 "폭력의 주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주기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주기는 점점 짧아질 수 있고, 폭력의 정도 또한 심해질 수도 있다.

신혼 여행중 등산을 했는데, 산정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왜 때려요?"라고 묻자, 그는 친구들이 아내를 교육하려면 삼 일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는 내 구두와 옷, 스타킹 등을 조심스럽게 벗겨주었고 세숫물까지 떠왔다. 침대에 눕는 것을 도와주며, "미안해. 내가 때린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며 사과했다. 나는 이것이 처음 있었던 일이기에 그의 말을 믿기로 했다. 내 부모님께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했고, 나도 부모님께서 알게 되면 이혼하라고 할 것이 뻔했기에 비밀을 지켰다. 그 당시 나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도 그는 나를 매일 때렸다.

그가 직장을 샌프란시스코로 옮겼을 때, 나는 "잘됐다! 우리 오빠와 언니가 여기에 사니까" 라는 생각을 하며 안심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난폭해졌다. 친정가족이 잠깐이라도 집에 들르면, 나를 물어뜯고 머리와 등을 때렸으며 팔목을 비트는 등의 폭력을 가했다. 나는 결국 가족들에게 "제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모두가 돌아간 후엔 그이가 항상 저를 때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눈치를 챈 그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그 후 어머니는 손수 담근 김치를 가져올 때면 문 밖에 놓고 초인종을 누른 다음 그냥 돌아가시곤 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소리를 질렀다. "왜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 여기는 내 집이야! 왜 당신 어머니가 매일 오는 거야? 누가 김치 갖다 달라고 했어? 갖다 버려!" 때때로 김치가 든 유리병을 박살 내곤 했다. 나는 결국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당부할 수밖에 없었다. 내 결혼생활 17년은 바로 이런 일들의 연속이었다.

- 미세스 박의 이야기

7) 가정폭력에 관한 잘못된 이해

- 가정폭력이 단순히 개개인이 삶에서 받는 압박감이나 긴장에 시달려서 나오는 것 혹은 "분노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삶에서 받는 압박감이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필 가족원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날까? 가족원들 간의 힘의 관계는 사회속에서 일어나는 힘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해자로 하여금 분노 조절을 배우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은 어느정도 폭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으나, 관계안에서의 힘의 불평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가정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헤어지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랐다.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없었고 . . . 나는 그녀가 직장으로 찾아올까 봐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나를 레즈비언이라고 말하게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블랙 리스트에 오르리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 미나의 이야기

8) 관계를 끝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피해생존자가 가해자를 떠나지 못하는 여러가지 이유들

-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 두려움 때문에
- 이민자로서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여 자신이 가진 법적 권리나 정보가 부족하고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배우자나 연인에게 의지해 왔기에
- 아이들이 한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까 봐, 그리고 그것이 본인 책임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미 악화될 때로 악화된 부부관계에 회복이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어린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미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인지, 한국에서의 사고방식대로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헤어진다는 생각은 쉽게 할 수 가 없었다.

- 미세스 리의 이야기

아이들은 "엄마, 왜 아빠와 이혼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고 친정에서도 이혼하라고 말했다. 남편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찾아내 칼로 얼굴을 그어버릴 것이라는 말을 종종 했었기에 내가 이혼을 요구하면 그가 나를 죽일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솔직히 이혼녀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혼녀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내 위치를 잃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이 나와 아이들에 관해 수군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온몸이 멍 투성일때는 내가 혹은 아이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직장에 나가지 않았고, 굳이 가야 할 경우엔 상처 난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가곤 했다.

하지만 최근 사건 이후, 나는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마약 중독자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마침내 도움을 청하는 심정과 같았다고 할까.

- 미세스 박의 이야기

2. 가정폭력과 아이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와 환경"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한 필수조건

폭력을 목격한 아이들: 폭력이 가정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많은 경우가 여성들의 임신 중에 시작되거나 심화된다. 그 결과로 많은 영아들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한다.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확률은 15배나 높다.

집안의 어른이 아이들을 상대로 물리적 혹은 성적 학대를 한다면, 그 사람은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정부는 안전을 제공 못한 그 가정으로부터 아이를 떼어 놓을 수 있다.

마지막 사건에서 그는 내 머리채들 잡아당겼고, 그의 손에는 달걀 크기만큼의 머리카락 한줌이 쥐여져 있었다. 그리고는 나를 욕조 안에 집어 던져 머리, 등, 어깨 할 것 없이 온몸을 때렸다. 나는 피를 흘렸고 도와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비명을 듣고 아이들이 왔으나, 남편은 애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때리기 시작했다. 그 때 아들은 열 살, 딸은 열 다섯 살이었는데, "가까이 오면 너희도 죽여버리겠어!"하고 위협하는 그이에게 아이들은 울면서 소리쳤다. "아빠, 아빠, 엄마를 때리지 마세요! 엄마를 그만 때리세요!"

-미세스 박의 이야기

가정을 무너뜨린 것은 폭력이지, 폭력을 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들 탓이 아님을 상기시키자.

3. 법적보호 조치들

1) 경찰부르기: **전화번호 911**

위험에 처 했을 때 911으로 전화한다.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911을 걸고 경찰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을 수 있도록 전화기를 켠 채 놔둔다. 경찰이 당신의 위치를 알아내어 방문할 수 있다.

경찰의 의무

- 상황을 조사하고 당신의 안전을 확인
- 다친 부위에 대한 의료지원
- 여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가해자를 체포하면 리포트 넘버(REPORT NUMBER)*를 당신에게 알려줘야 함

*리포트 넘버: 경찰이 작성하는 사건 보고서 번호

경찰방문시 당신은:

- "히 (혹은 쉬) 헐트 미"["HE/SHE HURT ME": 저 사람이 나를 다치게 했어요]라고 말한다.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거나 보여준다.
- 다친 부분을 전부 보여준다.
- 경찰이 체포할 생각이 없다면 당신이 체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어레스트 힘(혹은 허)" ["ARREST HIM/HER:"그 사람을 체포하세요] 라고 요구하면 경찰은 그 사람을 체포할 의무가 있다.
- "리포트 넘버"를 알아 둔다*.
- 경찰관 이름과 배지 번호 (제복 금속 핀에 있는 번호)를 적어 둔다. 경찰관이 당신 요구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정보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가해자가 체포되었다면

- 언제 구치소에서 석방되는지 알아본다.
- 그 사람이 석방되어 돌아왔을 때 당신과 아이들을 집에서 마주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집이 아닌 다른 안전한 곳에 머무실 것을 권장한다 (아래 39 페이지 6장 "안전 계획 세우기" 참고).

때때로 경찰이 가해자의 말에 설득되기에, 경찰을 부르는 것이 피해자의 상황에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찰을 부름으로써 매우 위험한 상황은 피할 수 있다.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폭력사건?

-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다.
-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체포를 거부할 수 있다. 체포에 대한 결정은 그 범죄의 중대성 및 경찰 개개인의 가정폭력 이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어찌되었든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가해자는 체포되면 형법에 기소되고 수감될까?

- **체포:** 폭력중 경찰이 왔다면, 경찰은 가해자를 당장 체포할 수 있고, 당신이 "시민에 의한 체포" ("citizen's arrest")를 요구할 수 있다.
- **기소:** 가해자는 체포 후 형법에 따라 기소되거나 안될 수 있다. 해를 입힌 증거, 상처 중상 여부, 과거 체포 기록 등에 대한 조사 후 지방검사가 결정을 내린다.
- **기소과정:** 지방검사가 기소를 진행하는 경우 법정심리 혹은 간담회가 열린다. 이런 경우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 지, 어떤 지원을 검찰측에서 해 줄 수 있는지 지방검사와 논의한다.
- 유죄판결시 가해자는 수감되지 않고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상담프로그램에 참석할 것을 지시받을 수 있다.

2) "접근금지명령" (혹은 "보호명령") 이란?

- 피해생존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적 명령.
- 흔히 가해자가 당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예를 들면 100 미터) 유지하도록 명령.
- 당신 직장 혹은 학교에 찾아오거나 자녀에게 접근하는 일을 금지하기도 함.
- 당신에게 전화를 걸거나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접촉을 금지하기도 함.

접근금지명령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 쉼터나 기타 가정폭력생존자 지원단체, 변호사나 경찰이 서류작성을 도와줄 수 있다 (아래 47페이지 9장에서 지원단체에 대한 정보 참고).

접근금지명령 진정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 접근금지명령 그 자체로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어떤 가해자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법명령을 무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가해자들이 법적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드린다면, 접근금지명령은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

접근금지명령은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당신 근처에 올 수 없도록 하기에, 금지명령 발급후 함께 산다면 금지명령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주에 따라 제한적인 접근금지명령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해자가 명령을 무시하고 접근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바로 출동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명령을 어긴 모든 사례들과 경찰에 신고했을 때 통화한 경찰관의 이름과 통화 내용을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명령들은 유효기간이 있다. 그에 유념하여 갱신을 언제 해야 할 지 생각해 두자.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 경찰을 부를 수 있다.
- 명령서를 경찰에게 보여주면 경찰은 그 사람을 명령 위반죄로 체포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폭력행위 증거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성애 관계에서 접근금지명령

-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 특별접근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법적보호장치가 있으므로 어떤 조치들이 가능한지 지역 단체를 통해 알아보자 (아래 47페이지 9장 지원단체에 대한 정보 참고).

법적제지명령을 받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법적제지명령을 받은 남편은 내게 전화를 걸거나 집에 올 수 없다.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때리는 사람이 없기에, 먹을 것이 부족해도 나는 행복하기만 하다. 그 전까지 난 그가 법적제지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헤어지면 칼로 얼굴을 그어 죽여버리겠다고 늘 나에게 말해왔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하곤 했었고, 나 또한 이혼을 하게 되면 분명 그가 날 죽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법적제지명령은 그 역시 법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세스 박의 이야기

3) 이혼과 법적별거

이혼

- 미국에서는 남편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다.
- 가정폭력 피해생존자로서 완전한 법적권리의 보장받기 위해서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다.
- 배우자생활수당비, 양육권, 양육비, 자녀방문 및 재산분할 등은 이혼의 과정에서 확정 져야 할 사항들이다.

법적별거

- "이혼인"이라는 "낙인"을 꺼린다면 "법적별거"를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생활수당비, 양육권, 양육비, 자녀방문 및 재산분할 등을 확정 짓는다.
- 법적 이혼이 아니므로, 배우자가 누릴 수 있는 몇몇의 혜택 (예를 들어 배우자건강보험)을 계속 제공받을 수 있지만, 법적재혼은 불가능하다.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변호사와 상의한다.

처음 이혼을 신청했을 때 이혼법원에 갔다. 그는 내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청했다. 새 사람이 되겠다며, 돈도 내가 관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전에는 내가 돈에 손도 대지 못하게 했었다. 그리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내내 애걸했다. 결국 난 그를 믿었고 이혼을 취소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 약 삼일 동안은 다정하게 잘 해 주었다. 하지만 삼 일째 되던 날 직장에서 전화를 걸어 식료품 대금으로 지불한 수표에 관해 물으며 소리를 질렀다. 나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완전히 새 사람이 되겠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혼을 취소했잖아요"하고 말하자, 그는“바보냐 그걸 믿게" 라고 대답했다. 내가 이혼신청을 재기해도 좋으냐고 묻자 그는“마음대로 해. 이혼을 취소한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고 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고 기가 막혀 울고 또 울었다.

온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내자신을 욕하여 하염없이 울었다. 그렇게 결혼생활은 2년간 더 계속되었고 그는 항상 나를 때렸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이혼 신청을 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고 오직 이혼만을 원했다. 이혼 절차를 밟았고 승소했다. 판사는 내게 양육권을 주었다.

난 이제 은퇴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공부를 지속해서 대학 수업을 받고 있으며, 아마 다음 해에 졸업을 하게 될 것 같다.

-미세스 박의 이야기

4) 양육권

아빠라서 혹은 재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적으로 아빠에게 부여되지는 않는다. 누가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주로 맡고 있었는지가 중대한 요소로 작용한다.

당신이 양육권을 얻으면 양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 (양육보조비)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극심한 물리적 또는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미국 법원은 양 부모와 아이들의 정기적 만남을 권장한다.

자녀방문권

아이들이 원치 않아도 부모는 일종의 자녀방문권을 갖게 된다. 아빠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법원은 아빠가 다른 성인의 감독하에서만 아이를 방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방문장소에 갈 경우 친구나 다른 가족원을 통해 그 만남을 성사시키거나 경찰서와 같은 장소에서 아이들을 교환하여 본인의 안전을 지키자.

적절한 법률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은 당신의 법적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하다.

전에는 아이가 아빠없이 자라야 한다는 게 너무도 속상했지만, 아이는 지금 아빠가 곁에 없어도 엄마와 사는 걸 행복해하며 자신 있고 무척 밝은 모습이다. 아이의 깊은 상처를 조금씩 지워가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매우 마음이 편하다. 아이와 난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많이 좋아졌다. 아이는 엄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나의 안정된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당당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커서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더 이상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다.

- 미세스 리의 이야기

5) 동성 반려자들 간의 양육권 혹은 자녀방문권

고려해야 할 사항들

- 누가 생모인지
- 누가 법적 양모인지 혹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양모인지

생모와 법적 양모가 아닌 반려자의 관계에서는 생모에게 일반적으로 양육권이 더 많이 주어진다.

가해자가 피해생존자에게 그녀가 동성애자임을 널리 알려 양육권을 갖기 못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한다.

동성애자임이 양육권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서는 안되지만, 어떤 주나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문제삼을 수 있다.

동성 부모에 대한 권리가 주나 시마다 다르므로 적절한 법률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동성모로서 당신의 법적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하다.

4. 가정폭력과 이민 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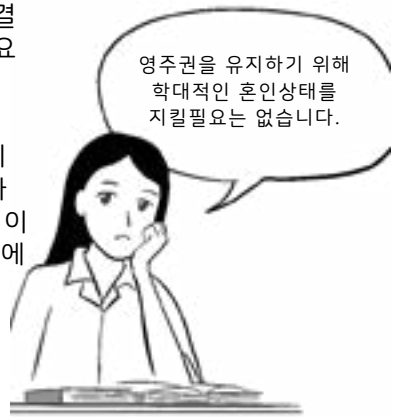
피해생존자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민 신분이 없다면?

- 폭력을 신고해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추방될 수 없다.
- 가정폭력 피해생존자 도움기관에서는 당신을 이민국에 알리지 않을 것이다.
- 법적 신분 신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적 신분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아래 47페이지 9장에서 지원단체에 대한 정보 참고).

피해생존자의 영주권이 신청된 상태?

(가해자인 배우자가 당신의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결혼한지 2년이 되지 않아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

- 영주권을 얻기 위해 결혼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 어떤 선택들이 있는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논의하자 (아래 47페이지 9장에서 지원단체에 대한 정보 참고).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내 영주권을 이민국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 배우자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가해자는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끝내 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 다행히 "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혹은 "VAWA" - "바와" 라고 발음된다)에 의하여 여성 스스로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본인이 영주권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자 (아래 47페이지 9장에서 지원단체에 대한 정보 참고).

피해생존자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경우?

- 가해자들이 생존자들을 이민국에 신고해 추방당하게 하겠다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이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이민국에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권자가 아닌 가해자가, 신고하면 추방될까?

- 경찰은 일반적으로 이민국과 업무협조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신분이 없는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 이민국에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 가해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중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면 추방될 가능성이 다소 있다.

5. 가정폭력을 겪는 지인을 도우려면?

그분이 혼자가 아님을 알린다.

- 당신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돕고 싶다고 말한다.
- 그분이 이런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그 분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처지에 있음을 인정한다.

- 자신의 감정을, 그것이 두려움, 분노, 고통, 모욕감, 죄책감, 혹은 애정이든, 그대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 혼란을 겪는 시기이며 주어진 상황에서 그분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이든지 정상적임을 알린다.
- 그분이 자신이 겪은 학대에 관해 당신과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꼭 잊지 말자.

폭력의 문제성을 축소, 부정, 변명해 주지 말자.

- 피해자들은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애정 및 다른 여러 감정 때문에 가해자의 학대 행위를 축소시키거나, 부정하거나, 변명을 해준다.
-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우리들은 학대를 축소, 부정, 변명해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그리고학대당하는 것이 그 사람 탓이 아님을 알려준다.

피해생존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존중한다.

- 그 분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준다.
- 당신의 의견을 먼저 내세우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 당신의 역할은 그분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분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버린다.
- 그 분으로 하여금 당신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결정하도록 한다.

비밀을 지킨다.

- 도움이나 정보를 받기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황 설명을 할 때 험담이나 소문거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또한 어떤 정보이든 가해자에게 전달할지 모를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생존자의 장점을 강조한다.

- 가정폭력은 피해생존자로 하여금 흔히 자책감, 수치심, 무력함을 느끼게 한다.
- 하지만 가정폭력을 생존한 것 만으로도 힘과 용기가 많은 분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 그분의 장점을 일깨워드려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함께 "안전계획"을 세운다.

- 만약 그분이 현재의 관계를 끝내고자 한다면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는데 도와준다 (아래 사항 참고).
- 그분이 안전하다고 여기지 않는 계획은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동반을 제안한다.

- 그분이 병원치료를 받거나 경찰 또는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할 때 함께 갈 수 있다고 제안한다.
- 동반하실 경우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다면,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당신이 도와줄 수 있는 한계를 인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한다.

- 가정폭력 생존자를 돕는 것은 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경우 다른 사람들이나 관련기관의 지지와 지원을 받자.
-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 그분과 이 책자를 함께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6. 반려자 혹은 애인이 학대한다고 느낄 때 할 수 있는 안전 장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 나눈다.

-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족, 이웃, 직장동료, 교인, 교사, 의사, 간호사, 또는 주변인)을 떠올려 보자.
- 당신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자.
- 단체에 지원과 상담을 요청하여 당신의 경험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담자를 찾아보자.
- 당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이 책자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당신의 폭력경험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변인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생각해본다.

- 폭력은 피해생존자의 고립을 증폭시키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고 어떻게 그들이 도울 수 있을지 알려주자.
- 예) 병원치료, 변호사 상담, 법원이나 지역경찰서 방문 등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동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아이들을 잠깐 돌봐 줄 수 있을지 또는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 있는지 등을 청해보자.

본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

- 가해자를 떠날 지, 경찰에 도움을 청할 지, 여성보호시설을 찾아갈 지 등의 결정을 내릴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는 피해생존자 본인만이 잘 알 수 있다.
- 안전을 위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첫걸음이 두렵고 위험한 도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불안하거나 죄책감이 들 수 있다. 이는 막 변화를 도모하기 시작할 때 흔히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임을 인지하자.
- 이 책자를 읽는 것은 본인과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첫 걸음을 딛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가해자와 헤어지려는 마음의 결정이 되어있지 않을지라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개인 필수품과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맡기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목록을 참고하자.

"응급상황 꾸러미" (Emergency Package)

- 개인 필수품: 현금, 열쇠, 필수 의약품, 지인과 지원단체 연락처와 주소 목록

- 중요한 서류: 여권, 운전면허증, 혼인신고서, 영주권 및 그 외의 이민관련 서류, 사회보장카드 (SOCIAL SECURITY CARD), 보험카드, 사회복지신분증, 은행통장, 월세임대 계약서 및 주택자금대출상환납입증명서(MORTGAGE PAYMENT BOOK), 자동차 등록증 및 관리증서

- 이민 신분을 바꾸거나 그 외의 법적 권리보장에 도움이 될 서류: 세금납부서, 가정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록, 결혼사진과 자녀를 동반한 가족여행 사진 -접근금지명령, 이혼절차, 양육권

- 자녀에 관한 서류: 자녀의 출생증명서, 자녀의 영주권과 여권 및 사회보장카드, 자녀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포함한 의료기록,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6

가해자와 헤어지거나 폭력을 피하려 할 경우

- 당신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하자.

- 당신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새로운 거주지를 가해자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그분에게 요청하자.

- 당사자의 신변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쉼터를 알아보자 (아래 "지원단체 목록" 정보 참고).

세월은 흘렀고 더 이상 악화될 수도 없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엔 그 동안 받은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으로 난 지쳐 있었고 살아갈 용기마저도 사라진 상태였다.

법으로 하고 싶어도 돈이 없었고, 또 그동안 함께 산 세월을 생각해 인정상 변호사를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그쪽에서 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였지만, 미국이란 나라와 이 나라 법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도저히 대책이 서질 않았다.

다행히 여성문제를 돕는 기관과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었다. 또한 자기만 원한다면 공부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라도 갑자기 위급해 졌을 때 가서 머무를 수 있는 여성 보호소 (Shelter) 라는 곳도 있다. 그 곳에서 자녀교육에 대하여 배웠고, 미국에 대한 지식도 넓힐 수 있었고, 외국사람들과 교제하며 각 나라의 문화도 익혔으며, 아이도 역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인내심을 키우며 여러가지 교육을 통하여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그곳은 나와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매우 안전한 곳이었다. 지금도 아이는 그곳이 여성 보호소라는 것은 모르지만, 친구들이 많고 선생님들이 있는 그곳을 매우 그리워하고 다시 그곳으로 이사 가자고 조른다.

- 미세스 리의 이야기

6

자녀의 안전 고려하기

- 아이들에게 긴급 상황시 911 전화 거는 법을 알려준다.
- 어린이집 교사나 의사에게 상황 설명후 도움을 청한다.
- 피신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준비를 한다.
- 가정폭력 상황이 절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아이들에게 당부해준다.

지원단체 찾아보기

- 아이들에게 긴급지원단체 들로부터 도움을 받자 (아래 "지원단체 목록" 참고).
- 전화상담을 통해 당신의 상황을 의논해보자. 그리고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자.
- 어떤 지원단체들에는 한국어를 말하고 이해하는 상담자들이 있다. 전화상담의 내용은 모두 비밀보장된다.

폭력 관계를 벗어날 준비에 필요한 그 밖에 것들

- 현재 거래가 없는 은행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
- 우체국 사서함 (P.O. Box) 본인 명의로 따로 개설

위에서 제안한 안전 계획과 준비가 다 되어있지 않아도 생존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당신의 선택과 판단을 믿자.

7. 헤어진 가해자로부터 안전 하려면?

접근금지(혹은 보호)명령 신청

- 발급받으신 후 유효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연장
- 발급된 명령서를 본인이 항상 지니고 다님
- 긴급상황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거주지나 차안의 안전한 장소에 추가 사본을 보관
- 가족, 직장동료, 친구들에게 복사본 제공

가해자와의 접촉과 연락 피함

- 가해자는 피해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다정하게 대하고 자신의 폭력 행위를 후회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가해자와 연락을 지속하는 것은 생존자와 자녀의 정서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 예전에 가해자와 함께 가던 상점, 은행, 음식점 및 기타 장소들을 가급적이면 피함 (가해자와 우연히라도 마주칠 확률을 줄이는 것이 생존자의 심리적 혹은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

가해자가 떠나고 당신이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는 경우

- 현관문 잠금장치를 교체한다.
- 가해자와 어떤 방식으로도 접촉하길 원치 않음을 이웃에게 알리고, 접근금지명령 복사본을 그들에게도 나눠준다. 또한, 가해자를 집 근처에서 목격한다면 경찰서로 전화하라고 부탁한다.

가해자가 당신의 직장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직장 동료들에게 당신의 상황을 알리고, 그들에게 접근금지명령 복사본을 제공한다. 또한, 가해자를 직장근처에서 본다면 경찰에 알리라고 부탁한다.
- 혹시 당신의 직장이 다른 주소의 근무실이나 지점을 가지고 있다면, 전근을 고려해 본다.

자녀의 안전 확보

- 보육원 교사나 아이를 돌봐 주는 사람에게 당신의 상황을 알린다.
- 학교측에 누가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린다.

8. 나 자신 돌보기

가정폭력의 경험은 분노, 불안감, 죄책감, 수치심, 상실감, 우울감 등 강한 정서적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폭력 상황에서 벗어난 후에 더 증폭될 수 있다. 또한 자립과 치유를 향한 걸음이 힘겹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 당신은 강인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날들을 견딜 수 있게 도와준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자.
- 심리·정서적 지원과 지지를 받자: 가정폭력 경험을 잘 이해하는 상담사, 지원단체, 친구 및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아이들 또한 비슷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기에 아이들을 위한 심리상담치료와 지원을 찾아보자.

다른 한인 여성들처럼 나 또한 수치스러워하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이제 그 수치심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사람들이 혹시 학대를 받은 게 어리석은 나의 잘못이며, 가정이 파괴된 것도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난 상관없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스 박의 이야기

9. 지원단체에 대한 정보 보기

긴급상담전화(Crisis Lines)

- 24시간 열려 있다.
- 정서적 지원과 상담,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정보와 도움을 준다.
- 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도 긴급상담전화에 문의할 수 있다.
- 지금 당장 보호시설을 이용할 생각이 없어도, 유용한 정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가정폭력이나 자신의 권리에 관해 어떤 궁금한 점도 망설이지 말고 전화상담자에게 물어보자.
- 전화상담 시, 당사자의 본명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긴급상담전화의 통화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된다.

한국어 상담을 원하면?

- 이름과 전화번호를 상담자에게 알려주고 "코리안"(한국어)이라고 말한다.
-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담자가 그 전화번호로 본인에게 연락할 것이다.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911 로 전화한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상담 전화 및 쉼터

ASIAN WOMEN'S SHELTER "에이-더블유-에스"
샌프란시스코, (한국어) 상담 및 쉼터 제공
877-751-0880
한국어 상담을 원하면 "KOREAN (코리안)" 이라고 말한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상담원에게 주시면 한국어 상담자가 연락할 것이다.

LA CASA DE LAS MADRES "라-카사"
샌프란시스코, 상담 및 쉼터 제공
877-503-1850

RILEY CENTER-ROSALIE HOUSE "라일리-센터"
샌프란시스코, (한국어) 상담 및 쉼터 제공
415-255-0165

COMMUNITY UNITED AGAINST VIOLENCE CUAV, "쿠압"
샌프란시스코, (한국어) 상담 제공, 게이, 레즈비언, 양성 등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원
415-333-HELP (4357)

W.O.M.A.N., INC. "워먼-잉크"
샌프란시스코, (한국어) 상담 제공
877-384-3578/415-864-4722

APA FAMILY SUPPORT SERVICES "에이-피-에이"
샌프란시스코, 상담 제공, 임신부 및 어린 아이가 있는 여성 지원
415-617-0061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상담 전화 및 쉼터

CAMERON HOUSE "케머런-하우스"
샌프란시스코, 상담 제공
415-781-0401

INSTITUTE ON AGING "인스티튯-온-에이징"
노인학대 상담 제공
415-750-4111

FRIENDSHIP LINE FOR THE ELDERLY "프랜드십"
노인학대 상담 제공
800-971-0016

ASIAN WOMEN'S HOME "아시안-위민스-홈"
SAN JOSE, 상담 제공
408-975-2739

STAND! FOR FAMILIES FREE OF VIOLENCE
"스탠드"
CONCORD, 상담 및 쉼터 제공
888-215-5555

TRI-VALLEY HAVEN "트라이-벨리-해이븐"
LIVERMORE, 상담 및 쉼터 제공
925-449-5842 OR 800-884-8119

SAVE "세이브"
FREMONT, 상담 및 쉼터 제공
510-794-6055

CENTER FOR DOMESTIC PEACE "센터-포-도메스틱-피스"
SAN RAFAEL, 상담 및 쉼터 제공
415-924-6616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법률 지원 단체

ASIAN PACIFIC ISLANDER LEGAL OUTREACH
APILO, "에이-피-아이-엘-오"
415-567-6255

BAY AREA LEGAL AID "베이-리걸"
800-551-5554

COOPERATIVE RESTRAINING ORDER CLINIC
CROC, "크락"
415-969-6711

LEGAL AID AT WORK "리걸-에이드"
888-864-8335

LEGAL ASSISTANCE TO THE ELDERLY "리걸-어시스턴스"
샌프란시스코,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권리 상담 제공
415-538-3333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GLIDE - MEN IN PROGRESS "글라이드"
샌프란시스코
415-674-6195

MEN OVERCOMING VIOLENCE "무브"
샌프란시스코
415-626-6683

CENTER FOR DOMESTIC PEACE "센터-포-도메스틱-피스"
MANKIND PROGRAM: 415-457-6760
WOMANKIND PROGRAM: 415-526-2552

STAND! "스탠드"
NON-VIOLENCE PROGRAM: 888-215-5555

아시안여성의쉼터 한인회원단체 K-PEACE